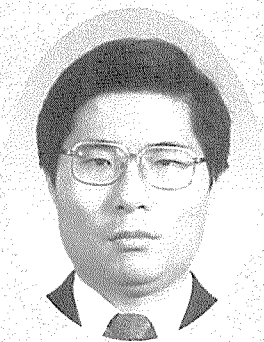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문 병 찬

〈한국석유개발공사 유가동향부장〉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파수꾼, 유가모니터링제도

금년 들어 석유조사처에 전화벨이 너무 많이 울린다. 국내외 석유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동향을 파악하는 우리나라 석유정보의 심장부 유개공 석유조사처에 웬 난데 없는 외인구단(?)이 늘어 이 조사처의 연구분위기를 깨는가? 하고 야단들이다. 이 외인구단은 다름아닌 새해 벽두부터 석유업계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유가자유화와 함께 나타난 유가동향부 직원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매일 전국 경향 각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답하느라 무척 바쁘다. 특히 월요일 오전은 더욱 더... 「어느 정유사 기름이 가장 쌉니까?」 「정유사별로는요?」 「우리 관할 구역의 주유소 가격을 Fax로 보내 주십시오?」 「정소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

아요?」 「평소에 우리 정유사 휘발유 가격을 소비자들이 가장 싸다고 믿고 사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기름값을 왜 이리 올리는거요?」 등등..

이처럼 전화 문의 내용은 각양각색이고 신속히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해 줄수 없는 하소연(?)까지도 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97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유가자유화에서 비롯된 궁금증이라 생각하고 유가자유화의 중심속에서 유가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유가동향부는 이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가모니터링 제도가 왜 필요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졌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유가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

정부는 '94년 2월 15일 유가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석유사업기금, 특별소비세, 관세등을 이용해 국내 유가 원충조정기능을 하던 종전의 체계를 개선한 바 있으며 '94년 11월 1일부터는 유가제도를 보다 자유화체계에 걸맞도록 유가연동기준을 원유가 뿐만 아니라 국제 석유시장(싱가포르 현물시장)제품가격과도 연동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격체계가 보다 국제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3년에 걸친 유가자유화 준비단계를 거쳐 금년 1월부터 국내 석유제품가격(단 LPG제외)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눈앞의 현실로 직면한 유가자유화는 석유시장의 경쟁이 종전보다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양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차제의 경쟁, 서비스경쟁, 유통망 확보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여러가지 경쟁요소들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요소중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물론 서비스라든지 회사의 이미지 등도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비자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 하나는 바로 제품의 가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가격차가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소폭 변화에 그치고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게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의 정도가 가격보다 더 우선되는 구매기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 상황을 가정할 경우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구매의 판단기준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바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가격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석유제품의 전면적 가격자유화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석유제품 가격 정보는 단순히 일반 소비대중의 구매 지표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유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등 석유업계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영

업을 위한 주요 경영지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석유유통구조의 합리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가격수준의 정착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격정보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정확한 가격정보의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 유가자유화에 따른 가격결정의 순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담합이나 과다경쟁 등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제품가격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는 실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때 정부는 유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석유판매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고, 일반 소비자는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구매활동을 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격조사는 OECD 및 IEA가입에 있어서 요구되는 석유관련 정보의 상호교류를 원만히 수행하는 등의 부수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유가모니터링제도 구축과정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를 '91년 9월 처음으로 마련한 정부는 유가자료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92년 1월 정기보고의 주체를 시·도에서 공사로 바꿔 휘발유(무연·고급)·등유·경유(유황분 0.2%, 1.0%) 3개유종 5개 제품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를 통해 각각 5개 정유사, 33개 대리점(서울시 5개, 광역시·도 각 2개), 239개 주유소(서울시 10개, 광역시 5개, 시·군 각 1개)등 유통단계별 판매 가격을 매주 월요일에 조사하여 수요일에 보고토록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조사체계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먼저 무엇보다도 관련협회를 통하는 2단계 조사체제로 신속성 결여가 그것이다.

둘째로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기본원칙이 없이 관련 협회가 임의선정하고 있다는 감이 없지 않았다.

셋째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은 3개 유종 5개 품목에 한정되고 있어 여타 제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판매가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가격자료처리 및 가격추이 분석등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면적인 유가자유화에 대비한 유가모니터링 제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신속·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유가모니터링을 구축하고자 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주유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유사등 관련업계 및 협회 그리고 소비자단체들과의 대책회의, 광역자치단체의 연료 담당 실무 책임자들과의 연석회의등 정부 및 공사의 주관하에 여러 회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졌다.

가격조사는 직접적인 가격조사체계를 구축하되 조사대상업체는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사주기는 주간 단위로 하면서 비상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여 전문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현행 유가모니터링 체계

유가모니터링은 석유사업법 제28조(보고 및 검사),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하여 국영기업체인 우리공사 유가동향부에서 유가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인 정유·대리점·주유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무연회발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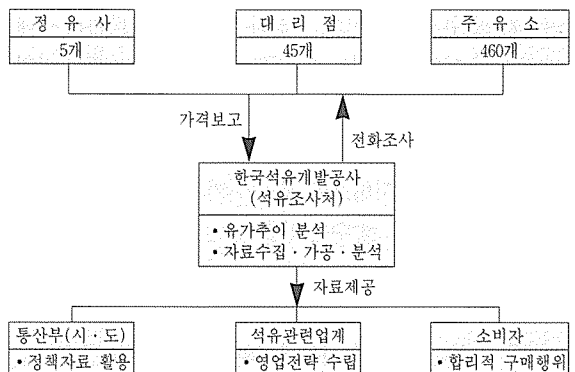
유, 경유(0.1%) 및 B-C유(1.0%)의 석유제품 가격을 조사하며, 이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96-401호에서 판매가격 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유사 및 대리점의 경우 유가 조사는 매주 수요일에 전화를 걸어 화요일의 판매가격(정유사: 공장도가격, 대리점: 주유소 출고가격)을 조사하고 주유소는 2개 그룹으로 구분(A그룹: 화요일 B그룹: 목요일)하여 매주 화·목요일에 각각 가격표시제에 의한 당일 점두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는 수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표본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별 판매물량 순위, 동일정유사 계열여부 및 시장 점유율, 대리점 및 주유소의 지역별 위치를 우선 고려하는 방법으로 각 협회와 협의하여 정유사는 전수조사(정유5사), 대리점 및 주유소는 신외도 99%, 허용오차 1원으로 하여 대리점 단계에서는 광역시·도(15개)를 중심으로 3개씩 선정하여 45개, 주유소

■ 유가모니터링 절차도

○ 흐름도



○ 업무 Cycle(1주 단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추진사항	발표 (지난주 결과)	주유소 A그룹 (230개)	정유사 대리점 (50개)	주유소 B그룹 (230개)	가공· 분석

단계는 시·군·구(230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2개씩 46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된 유가자료는 지역별(광역시·도), 기간별 제품별로 산술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공사 발간물인 주간 석유뉴스 등을 통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PC통신, 음성 전화서비스 등의 공표 매체를 도입하여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모니터링 운영성과, 1개월 및 그 이후

유가모니터링 운영결과 매주 가격조사 회수율이 정유사,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단계별 모두 99% 이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격정보에 대한 문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석유를 생산하는 정유사에서부터 시골 주유소까지, 석유전문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부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실로 아주 다양하다. 이들은 정유사,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단계별, 지역별 평균가격, 최저가에서 최고가에 이르는 가격 범위대별로, 조사하지도 않는 유종까지 아주 광범위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유가자유화로 인한 무한경쟁의 시작을 피부로 실감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매주 실시하는 정기조사 5회, 우리나라 유행가의 1번지이자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파악 및 실태조사, 공장도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 가격을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공장도가격 인상 효과를 추기한 대리점 가격조사등 특별 조사 4회를 실시하였다.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연동제 체계하에서 조사된 '96년 12월 평균가격에 비해 유가자유화 시행 이후인 '97년 1월 평균가격은 국제 원유가격 및 제품가격 상승과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 증가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4~11% 범위내에서 상승하였다.

지역별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보면 무연휘발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북으로 1당 828.99원으로 거래되고, 대전은 1당 826.94원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등유 가격은 전월대비 11.96% 오른 387.39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대구지역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충남지역이 383.68원으로 전국 최저 가격을 시현하고, 경유 가격은 부산지역이 381.98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며, 제주지역이 377.85원으로 전국최저로 조사되었다.

플별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은 무연휘발유의 경우 826~829원, 등유는 384~387원, 경유는 379~382원으로 5개품 모두 근소한 차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별 조사는 주유소 판매가의 지역 담합의혹이 있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산부와 관할구청이 행정지도로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전국 평균 가격 이상으로 받고 있는 4개 주유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석유거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파수꾼으로 유가모니터링제도의 기대 및 사명감을 자못크다 할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 또한 무척 많다. 금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유독 높은 가격대를 유지한 도서지역, 관광특수지역들의 기름값등 특정지역조사, 담합 내지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격질서의 혼란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유가모니터링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 일반업체 및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사유종 확대, 현 유가모니터링 조사결과와 현장실지 조사 결과와의 상관관계, 주요 선진국의 유통비용과 세금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격구조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 일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격 정보의 생산등 산적해 있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모니터링호는 끝없는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석유업계 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바라며 끝까지 지켜봐 주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